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연구

A Study on Undergraduates' Citation Use and Plagiarism Awareness

이 혜 영(Hey-Young Rhee)*

남 태 우(Tae-Woo Nam)**

목 차

- | | |
|--------------------------|----------------|
| 1. 서론 | 2.2 인용방식 및 표기법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선행연구 |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분석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 결론 |
| 2.1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의 표절과 인용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인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고 과제 작성 시 인용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인용 관련 문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인용 지식을 조사해 본 결과, 올바른 인용법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인용하는 자료로는 인쇄자료와 인터넷 및 웹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자료인 경우 단행본을, 인터넷 및 웹 자료인 경우 학술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교육 기관으로 는 대학 당국에서 인용 및 표절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 당국에서의 인용 및 표절 프로그램 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 교육을 통해서도 인용 및 표절, 인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undergraduates' citation use and plagiarism awareness. A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and was given to undergraduates in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Upon investigation, undergraduates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the need of citation and were partly applying citations. However, upon further investigation of undergraduates' citation learning with citation questions, very few of respondents had knowledge of correct citation usage. Undergraduates mostly cited print materials and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They used books in case of print materials and web materials provided by academic institutions. They suggested that the university should teach citation usage through a citation and plagiarism awareness program. It is necessary for library use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s well as university to teach citation education including citation type and how to write it.

키워드: 인용, 표절, 대학생, 정보활용능력, 학술적 글쓰기, 인용표기법
citation, plagiarism, undergraduate, information literacy, academic and research writings, citation writing method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onju@hanmail.net)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0년 7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8월 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175-198, 2010. [DOI:10.4275/KSLIS.2010.44.3.17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들은 누구나 과제를 작성 할 시 그것이 인쇄문헌이든 전자문헌이든 간에 매체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참고·이용하고 인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물의 정확성을 위하여 이용한 정보의 인용사항을 밝히는 것은 과제물 작성자에게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인용은 참고하였던 관련 문헌 및 정보원에 대하여 규정화된 인용표기형식에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신뢰와 정확성을 갖게 될 뿐 만 아니라 표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참고한 문헌을 기재는 하지만 이를 인용형식에 맞추어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학생들이 인용한 자원에 대한 인용사항을 밝히지 않는 이유 혹은 인용형식에 맞추어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수강과목 담당교수가 대학생들의 인용 표시 유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인용표기 형식을 모르거나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용은 정보활용능력 표준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이상에서는 인용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용형식에 맞추어 인용기재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인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 시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과제물

작성의 정확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인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제적인 인용교육에 들어가기 전 현재 대학생들의 인용과 표절에 관한 지식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인용에 관한 수준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생들이 인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 유형도 조사해 봄으로써 학문적으로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당국이나 도서관 또는 수강과목 담당교수가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인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효율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에 관한 선행연구와 질문지 작성을 위하여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인용에 관한 실제 지식과 인용 자료 그리고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인용 관련 문제는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문 속에 인용문 삼입방식과 참고문헌 표기법에 관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서울 소재 4년제 C대학과 D대학의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2,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학년은 다른 학년들에 비하여 인용에 대한 인식 특히 지식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질

문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대략 15분~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질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여 198부를 수거함으로써 99%의 수거율을 보였으며 수거된 198부의 질문지 모두가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로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 12.0K를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의 표절과 인용

대학생들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통해 학문을 추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터득한다. 이들이 학문을 추구하는 방법 중 한 가지에는 과제 작성(리포트, 학술적 글쓰기)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무수히 많은 기존 학자들의 이론과 사고를 배우게 된다. 또한 그들의 이론과 사고를 통해 대학생들은 그들 나름의 학문적 사고를 표현하고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인용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용하게 되며 인용을 통해 기존 학자들의 이론과 사고를 제시함으로써 이는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과제 작성 시 인용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잘못된 인용표기법은 ‘표절’이라는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표절을 피하는 방법이나 정확한 인용표기법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저작을 무단으로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이

라고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2005). 국어사전에서는 “남의 시가·문장 등의 글귀를 훔쳐서 자기 것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민중서림편집국 2010),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한국 위키 백과사전 2010).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절은 대학생들의 과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① 자신의 글에서 어떤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 ②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임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
- ③ 짧은 구절을 인용할 때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긴 구절을 인용할 때 새로운 단락을 만들어 들여 쓰기를 함으로써 직접 인용임을 나타내지 않을 때
- ④ 자신이 인용한 원 자료를 자신의 표현으로 구절을 바꿔 쓰지 않고 똑같이 사용했을 때
- ⑤ 글을 구입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제출했을 때
- ⑥ 하나의 글을 다른 두 개의 과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먼저 수강한 과목의 담당교수 허락 없이 나중에 수강하는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이미 제출했던 글을 재사용할 때

위에 제시된 대학생들의 표절 양상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표절을 피하는 방법을 모르고 인용표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주의한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상기 제시된 내용들의 상반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용의 정의와 인용표기법을 올바르게 익히는 것이다.

인용(quotation: citation)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씀”(민중서림편집국 2010)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다른 백과사전에서는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어 위키 백과사전 2010). 즉 인용이라 함은, 논리적으로 전개시키고자 원문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올바르게 널리 알려진 인용표기법을 사용하여 인용문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본인의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은 기존 학문적 내용

을 표현하고 사고를 확장시킴으로써 학문의 발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선행 학자들의 이론과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데 있어 논증의 타당성 또는 권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인용은 학문 발전을 위해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표절과 인용은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곽동철 2007).

학문 발전을 위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용은 정보활용능력 표준지침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 및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대학도서관협회 표준위원회(ACRL)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준(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Higher Education) 중 표준지침5에 다음 <표 1>과 같은 내용이 있다.

<표 1>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준지침5

표준2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한다.
수행지표5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보와 그 정보원을 발췌하고 기록하고 관리한다.
- 인용된 정보원의 유형들을 구분하고 다양한 정보원의 올바른 인용 양식과 요소를 이해한다.
표준5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경제적, 법적,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한다.
수행지표2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보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관련된 법과 규정, 기관의 정책, 에티켓을 따른다.
이에 따른 결과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표절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연하지 않는다.
수행지표3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제품 혹은 수행의 의사소통에 있어 정보원의 이용을 인지한다.
이에 따른 결과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적절한 문서 양식을 선택하고 출처의 인용을 위해 이를 일관되게 이용한다.

또한 영국 국립 및 대학도서관협회(SCONUL)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The Seven Pillars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에는 표준지침6에 <표 2>와 같은 내용이 있다.

호주대학교서관협회(CAUL)에서 제시한 호주 정보활용능력 표준 제1판(Australian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 1st edition)의 표준지침6에 <표 3>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연구소(ANZIIL)에서 발표한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프레임워크 제2판(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 2nd edition)의 표준지침6에도 <표 3>에서 제시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아래에 제시한 <표 4>와 함께 4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접근과 이용에 필요한 법적, 윤리적 지침을 기술하고 있으며, '법적, 윤리적'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은 바로 인용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대학교서관협회 표준위원회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준 중 표준2의 수행지표5에는 '인용된 정보원의 유형들을 구분하고 다양한 정보원의 올바른 인용 양식과 요소를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인용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면서 인용 종류와 인용할 때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각각의 표준들은 정보활용능력을 위해 개발·발표된 표준지침들로서 각 표준들은 인용이 정보활용능력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 중 하나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인용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정보접근과 이용에 이를 적용시키는 것은 정보활

<표 2>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 표준지침6

표준지침6: 정보의 조직과 적용 및 전달능력
- 보고서와 논문에 대한 서지적 참조의 인용 능력
- 저작권과 표절 문제에 대한 이해

<표 3> 호주 정보활용능력 표준 제1판 표준지침6

표준지침6: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은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문화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그리고 예의바르게 접근하고 이용한다.
성취목표
- 정보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제도적 정책 및 에티켓 준수
- 연구 성과의 전달에 있어서 정보원의 인용 표시

<표 4>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프레임워크 제2판 표준지침6

표준지침6 - 사회문화적 인식: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문화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이용한다.
성취목표
-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관습과 에티켓 준수

용능력을 위해서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을 도서관을 통해 혹은 관련 과목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 인용 관련 규정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용 인식과 지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2 인용방식 및 표기법

인용방식 및 표기법은 학문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즉, 첫째, 본문 속에 인용문의 삽입 방식 둘째, 인용주의 위치나 서지기술형식 셋째, 인용주와 참고문헌 관계표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방식은 콰동철의 논문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콰동철 2007).

첫째, 본문 속에 인용문(인용구절)을 삽입하는 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문장부호(작은따옴표 ‘ ’ 또는 큰따옴표 “ ”)를 사용하여 본문의 필요한 부분에 인용문을 삽입하거나, (2) 본문 속에 삽입할 인용문의 분량이 많으면 별행으로 들여쓰기 할 수 있으며 그리고 (3) 인용문을 재해석하여 본문 속의 문장으로 소화시켜 문장부호나 인용문으로 표시하지 않고 처리하기도 한다.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본문의 필요한 부분에 인용문을 삽입하거나, 본문 속에 삽입할 인용문의 분량이 많으면 별행으로 들여쓰기를 할 경우에 인용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만약 인용문이 문장 논리나 이탈자가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인용주의 위치나 인용문헌 서지기술형식은 (1) 인용 서지를 인용주 또는 주기(註記) 형식으로 표시하는 위치 및 (2) 인용문헌에 대한 서지의 기술형식을 포함한다. 인용주에는 내용주(해설주, explanatory notes)와 참조주(인용문헌의 서지 표시, reference notes)가 있으며, 둘 다 적당한 위치에 표시된다. 인용주는 기입되는 장소에 따라 두주(頭註, 본문 위), 방주(傍註, 본문 측면에), 할주(割註, 본문 중간에), 그리고 각주(脚註, 본문 아래에), 미주(尾註, 본문 마지막에) 등으로 구분된다. 인용문헌 서지기술형식은 피인용 대상이 되는 인용문헌 즉, 단행본, 논문, 다른 이의 말 등의 특정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서지의 기술형식이다. 대체로 인용문헌은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 페이지’와 같은 간략한 서지요소로 기술되며, 다른 문헌서지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에서 표시되고 있다. 즉, 인용문헌은 너무 많은 서지요소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서로 다른 인용문헌들을 상호간에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면 충분하다.

셋째, 인용주와 참고문헌의 관계 표시는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인용표시방법인 인용주와 참고문헌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위치가 다르고, 기호법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인용주에서는 인용되는 모든 문헌을 표시하게 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참고문헌의 경우에 인용주로 인용되지 않았지만, 참고한 문헌 까지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용문헌의 수와 참고문헌의 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고문헌의 수는 인용문헌 수보다 많아질 개연성

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인용주와 참고문헌을 모두 갖고 있을 수도 있으며, 둘 중에 하나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체로 인용주가 참고문헌을 대체하든지, 참고문헌이 인용주를 대신하든지 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학문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용주나 참고문헌 작성방식은 MLA 방식과 APA 방식 및 CSM 방식, ACS 방식, AIP 방식 등이 있다. 또한 의학 분야에서는 하버드 방식과 밴쿠버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본문 속에 인용문(인용구절)을 삽입하는 방법과 URL 기입방법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려고 한다. 본 내용은 정필모의 『학술논문작성지침』(정필모 2004)과 Charles Lipson의 '정직한 글쓰기'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Lipson 김형주 역 2008).

2.2.1 올바른 인용법

다른 저자의 말을 인용할 경우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문단을 바꿔 들여쓰기 함으로써 인용문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출처 또한 밝혀야 한다. 단순히 저자의 이름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직접 인용문일 경우 인용부호를 붙이고 전체 문장을 명시해야 한다. 다른 저자의 말을 쉽게 풀어 쓸 경우 원문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지 말고 자신만의 언어를 최대한 살려 써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법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1)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은 그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 인용은 주로 법조문이나 법규 또는 포고문을 밝히는 경우,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공식을 인용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도 원문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한다. 몇 가지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한 문장을 통째로 인용할 때에는 문장 전체에 인용부호(" ")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한 문장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 부분에만 인용부호(" ")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인용할 때에는 각각 나누어 인용부호(" ")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기 위해서 어느 문장의 첫머리나 중간 또는 뒷부분만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원문의 뜻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략되어야 하며 생략된 부분은 반드시 생략부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략부호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 ⑤ 인용하고자 하는 원문의 문장 가운데 분명히 생략된 부분이 있거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필할 수도 있는데, 가필한 부분은 반드시 각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 ⑥ 인용문 안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 있는 경우, 인용문 안의 따옴표를 작은따옴표(' ')로 바꾼다.

(2)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문의 내용을 일단 작성자의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로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단, 원문을 모방하거나 원문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원문의 일부만 그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표현을 바꾸어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직접 인용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말줄임표 생략 표시

기본적으로 인용문은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두 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인용문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첫째, 생략된 부분 때문에 인용문의 의미가 변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단어 하나라도 생략했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 점 세 개를 각각 한 칸씩 띄어서 표시하는 생략부호(. . .)를 사용하면 된다. 생략부호를 사용하는 목적은 자신이 인용한 원문에서 인위적으로 생략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생략은 세 지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다

르게 표시된다. <표 5>는 말줄임표 생략 표시에 관한 설명을 실례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략부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원문의 저자가 의도한 뜻을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생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4) 내어 쓰기

공통적인 참고문헌 표기 방식 가운데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지사항에 대한 정보가 한 행을 초과할 때, 반드시 내어 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어 쓰기를 할 때에는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행을 들여 쓰면 된다.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참고문헌 목록을 훑어 볼 때, 저자의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5) URL이 길어 짧게 줄일 경우

URL이 한 줄을 넘을 때에는, 빗금(/)이나 쌍빗금(//), 온점(.), 반점(.), 물음표(?), 물결표(~), 연결부호(&), 붙임표(-), 밑줄(_) 그리고 숫자 앞에서 줄을 바꿔 표기한다.

이상의 인용표기법들은 대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작은 실수로 인해 표절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표 5> 말줄임표 생략 표시

생략 지점	생략을 표시하는 방법	실례
한 문장의 중간 지점	간단한 생략부호	Granted, this example is . . . simple.
문장이 끝난 바로 다음 지점	문장의 끝 지점에 마침표를 찍고 그 뒤에 생략부호를 붙임	Granted, this example is easy and simple. . . .But I hope it is clear and useful.
문장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 문장의 끝이나 그 이후 지점에서 마칠 경우	생략부호를 붙인 다음 마침표 찍기	Granted, this example is easy But I hope it is clear and useful.

2.3 선행연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용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수는 대학 글쓰기에서의 표절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인식 고취를 위하여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규정 개관과 표절 방지 정책을 제시하였다(김성수 2008). 미국 대학들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적 정직성 -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나 글쓰기에서의 표절 - 에 깊은 관심을 두고서 학생들이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대학이나 교육 단체들은 글쓰기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문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학문의 정직성'의 원칙과 세부 방침들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사례로 퍼듀, 스탠포드, 미시간, 예일, 코넬, 프린스턴, 텍사스, 조지타운 대학 등에서 학문적 정직성을 위한 규정 개관과 표절 방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인재는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교육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윤리 수준을 언급하면서 표절에 대한 이해와 표절 예방을 위한 글쓰기 윤리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인재 2008). 이를 위해 미국에서 표절행위를 했을 경우의 처벌 방식에 대한 사례도 제시하였다.

최선경은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보이는 인용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글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대상으로 인용방식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최선경 2009). 조사 결과 인용한 문헌의 서지기술 방식

과 관련된 오류, 인용표기와 관련된 오류, 인용문의 이해와 관련된 오류, 인용문의 선택과 관련된 오류, 인용문의 길이 및 빈도와 관련된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Davis는 인용행태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Cornell University에서 미시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들의 과제물 수행 행태를 추적·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조사로 이루어졌다(Davis 2003).

첫 번째는 해당 과목 담당교수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말과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기말과제에 인용서지사항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술적 자원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할 때는 과목 담당교수가 정확한 인용서지정보 기입, 학술적 자원 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인용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가도록 미리 알려주었다. 조사결과, 기말과제에 인용서지사항의 기록이 증가하였으며 학술적 자원의 이용과 정확성과 지속성을 지닌 웹 자원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대학생들의 과제물 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웹 자원의 인용을 금지시키기 보다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웹 자원을 인용하는데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과목 담당교수와 사서는 학생들의 과제물 인용 관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Robinson & Schlegl은 수업 중에 이루어지

는 도서관 교육이 학생들이 과제물에 인용하는 자원과 그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Robinson & Schlegl 2004). 본 연구는 캐나다에 있는 The University of Regina의 정치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교육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술자료를 이용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에서 제시하는 벌칙과 연계되어 있는 최소한의 인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긍정적이며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정 제시는 인터넷상의 자원 이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부가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인용행위는 학년과 상관관계가 있음도 분석하였다.

Carlson은 대학생들이 과제 작성을 위하여 인용하는 자원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학년, 학과, 그리고 수업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Carlson 2006).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과제물을 통하여 인용한 정보자원의 수와 각각의 퍼센티지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인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의 3가지 요소는 학생들의 인용 자원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과제물에 인용 할 만 한 자원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도서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cey & Sung은 대학생들이 과제물에 인용한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Stacey & Sung 2008).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이 과제물에 인용한 자료의 유형, 인용 수, 출판년도, 웹상으로 이

용 가능한지의 여부, 인용된 자료의 질적 수준 등을 분석요소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957개의 표본 샘플 중 293개는 인용, 각주 또는 참고문헌 리스트 등이 전혀 없었으며, 244개는 인용이 표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참고문헌이나 각주는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420개는 인용, 각주, 참고문헌 리스트가 모두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웹 자원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인용과 관련된 연구들 중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료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한 연구들이 있다.

Davis와 Cohen은 학생들이 웹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고 학자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자료들을 인용한데 비해 웹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대중적이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의 인용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언급하였다(Davis & Cohen 2001).

Grimes와 Boening은 학생들은 과제물 작성 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을 인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웹 자원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평가하려는 노력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imes & Boening 2001).

Burton과 Chadwick은 학생들은 과제물 작성을 하는데 있어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인쇄자료보다는 전자 자료를 인용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그들이 검색하기 쉽고 획득하기 쉬운 자료를 가장 좋은 자료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Burton & Chadwick 2000).

Oppenheim과 Smith는 정보학과 학생들의 기말 과제물을 분석한 결과 도서가 40.2%, 저널이 29.5% 순으로 인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Oppenheim & Smith 2001).

Yu, Sullivan과 Woodhall은 공학과 학생들의 서지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자원에 대한 인용이 줄어들었음을 연구하였다(Yu, Sullivan & Woodhall 2006). 즉, 1학년인 경우 인용의 67.1%가 웹 사이트였으며, 4학년의 경우 인용의 22.9%만이 웹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Valentine은 교수들이 '우수한' 자료를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우수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인용한 자료들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Valentine 2001).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외국에서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토대로 인용된 문헌에 대한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인용자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용자원의 유형 그리고 도서관 교육이 인용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용문을 과제에 인용할 시 또한 참고문헌 기재 시 올바른 인용법을 적용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인용에 관한 인식 및 중요성은 있을지라도 그에 관한 지식은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과제물에 인용문헌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인용 지식수준을 조사해 봄으로써 실제적으로 인용교육을 실시할 시 구체적인 교육기관과 교육방침 및 인용 지침(guideline)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분석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용에 관한 실제 지식과 인용자료 및 인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함으로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전체 응답자 정답률
-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정답률 및 상관관계
- 전체 응답자들의 답변률
-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교육 기회
-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인용 표기 유무
- 전체 응답자들의 과제 작성 시 표절 경험과 이에 관한 인식
-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
- 전체 응답자들의 인용자료 유형
- 전체 응답자들의 인용, 표절 인식 및 교육과 담당기관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C대학과 D대학의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2, 3, 4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이 중 198부가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학년별 기초통계량

학 년	N	%
2	44	22.2
3	69	34.8
4	85	42.9
합 계	198	100

샘플링 결과 4학년이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학년이 34.8%, 2학년이 22.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한 9개 내용에 대한 각각의 분석 결과이다.

3.1 전체 응답자 정답률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 문항 중 문항15~문항26은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인용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답이 있는 문항들이다. 응답자에는 인용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들과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정답률 기술통계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전체 응답자 정답률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2	44	31.29	11.541	1.740
3	69	33.78	14.099	1.697
4	85	30.50	13.347	1.448
합계	198	31.82	13.259	0.942

전체 응답자 정답률 평균은 31.82%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비율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은 31.29%, 3학년은 33.78% 그리고 4학년은 30.50%로 각각의 학년별 정답률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대학생들의 인용지식은 낮다고 볼 수 있다.

3.2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정답률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정규 인용 교육을 받은 집단

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샘플링 작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인용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를 질문지 응답자들이 개별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198명 중 인용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들은 총 89명인 44.9%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총 109명인 55.1%를 차지하였다. 대학교육 과정에 있어 인용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89명 응답자들의 문항15~문항26까지 정답률은 <표 8>과 같다.

<표 8>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정답률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2	16	31.25	9.512	2.378
3	38	33.40	15.722	2.550
4	35	30.55	13.644	2.306
합계	89	31.89	13.894	1.473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정답률은 31.89%로 전체 응답자 정답률과 거의 차이가 없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용 교육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에 대한 낮은 비율이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관련 분석 사항들과 함께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이어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정답률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따르면,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정답률의 유의수준은 0.943으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인용 교육 경험은 정답률에

〈표 9〉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정답률과의 관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000	1	.000	.005	.943
집단-내	3.463	196	.018		
합계	3.463	197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규 인용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용교육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여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완전한 내용이 아닌 부분적인 내용의 인용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지 사항 요소와 나열 순서만을 다룬 간단한 교육이라든지 인용과 표절의 사전적 정의의 차이점만을 간략하게 교육받은 경우이다.

둘째, 인용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교육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과제 작성 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용 작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수강 과목 담당 교수가 특별히 인용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응답자들이 인용 표시에 소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용 교육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인용방법이나 표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잘못'까지는 아니어도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올바르게 못한 인용표기 및 표절을 할 수 있다(김성수 2008).

3.3 전체 응답자들의 답변률

이는 문항15~문항26에 해당되는 질문이다. 상기 3.2의 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인용 교육 경험은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보다는 전체 응답자들의 문항15~문항26 답변률과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제시 및 분석에 있어 질문을 내용적으로 구분하여 문항15~문항18, 문항19, 문항20~문항24 그리고 문항25~문항26으로 나누었다.

3.3.1 단행본, 학위논문, 학회지·학술지 논문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문헌에 표기 시 필요한 서지사항 요소 답변률(문항 15~문항18)

〈표 10〉은 전체 응답자들의 문항15~문항18 답변률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항17만을 제외하고 3개 문항에 대한 오답률이 정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항18은 다른 문항들에 비해 정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 인터넷 자료를 참고문헌에 표기 시 필요한 서지사항 요소로는 필자명(블로그 작성자명, 웹 페이지 저자명...), 제목, 인터넷 URL, 본인이 접속한 날짜이다. 문항18에 대한 응답자 대부분은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naver,

〈표 10〉 전체 응답자들의 문항15~문항18 답변률

		N	%
문항15 (단행본 참고문헌에 표기 시 필요한 서지사항 요소)	정답	64	32.2
	오답	134	67.7
	합계	198	100.0
문항16 (학위논문 참고문헌에 표기 시 필요한 서지사항 요소)	정답	66	33.3
	오답	131	66.2
	합계	197	99.5
문항17 (학술지나 학회지 논문 참고문헌에 표기 시 필요한 서지사항 요소)	정답	133	67.2
	오답	64	32.3
	합계	197	99.5
문항18 (인터넷 자료 참고문헌에 표기 시 필요한 서지사항 요소)	정답	9	4.5
	오답	188	94.9
	합계	197	99.5

daum, google...)'에 표기를 하였으며 '본인이 접속한 날짜'에는 상당수가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인용 교육 시 이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3.2 표절에 관한 이해 답변률(문항19)

문항19의 질문 내용은 보기 4개를 제시한 후, 이 중 표절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것이다. 전체 응답자 198명 중 110명(55.6%)이 오답률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정답률 88명(4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있는 표현이나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용된 자료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원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거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는 표절로 알고 있지만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서 빌려 온 아이디어, 자료, 단어, 문장이라고 해도 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

하는 경우'는 표절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즉 '자기표절'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하는데 있어 출처를 굳이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또한 표절 행위로 간주된다.

3.3.3 사례 문제제시를 통한 올바른 인용법 답변률(문항20~문항24)

〈표 11〉은 문항20~문항24에 대한 답변률 결과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항20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의 정답률은 오답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항20은 가장 기본적인 인용법인 문장을 통째로 인용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여러 서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큰따옴표(" ")와 주석표시로 이루어지는 인용법이다. 문항21~문항24에 대한 응답자들의 오답은 한 개의 오답에 치중해 있기 보다는 여러 오답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과제 작성

〈표 11〉 문항20~문항24 답변률

		N	%
문항20 (문장을 통째로 인용할 시 인용법)	정답	148	74.7
	오답	50	25.3
	합계	198	100.0
문항21 (문장의 일부 구만을 인용할 시 인용법)	정답	23	11.6
	오답	175	88.4
	합계	198	100.0
문항22 (문장의 일부를 자기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할 시 인용법)	정답	83	41.9
	오답	115	58.1
	합계	198	100.0
문항23 (문장의 일부 단어만을 인용할 시 인용법)	정답	15	7.6
	오답	183	92.4
	합계	198	100.0
문항24 (문장의 일부를 생략할 시 말줄임표 생략표시법)	정답	55	27.8
	오답	143	72.2
	합계	198	100.0

시 수강과목 담당교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본인의 생각보다는 이용한 참고문헌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통째로 ‘베껴’쓰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생각을 추가하면서 부분적인 인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항21~문항24에 해당하는 질문들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인용 교육 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이다.

3.3.4 줄 바꿈 표기 답변률(문항25~문항26)
〈표 12〉는 문항25~문항26 답변률 결과이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문항 모두 정답률이 낮게 나왔다. 문항25는 참고문헌 기재 시 서지사항에 대한 정보가 한 행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내어 쓰기를 해야 한다. 즉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행을 들여 쓰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와 반대의 표기법에 표시를 하였다.

문항26 URL을 줄을 바꿔 표기할 경우에는 빗금 뒤에서 끊어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문장 부호 앞에서 끊어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빗금 뒤에서 끊어 표기하는 방

〈표 12〉 문항25~문항26 답변률

		N	%
문항25 (참고문헌 표기 시 서지사항에 대한 정보가 한 행을 초과할 시 표기법)	정답	79	39.9
	오답	119	60.1
	합계	198	100.0
문항26 (URL을 줄을 바꿔 표기 할 시 올바른 표기법)	정답	5	2.5
	오답	192	97.0
	합계	197	99.5

법에는 익숙한 반면 문장 부호 앞에서 끊어 표기하는 방법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교육 기회

문항5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 <표 13>은 본 결과에 대한 표이다.

<표 13>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교육 기회

	N	%
수강과목 시간	76	85.4
인용 및 표절 관련 프로그램	6	6.7
도서관 이용 교육 시간	0	0
기타	2	2.2
합계	84	94.4

상기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기회는 '수강과목 시간'이 8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강과목 시간'이라 함은 인용 내용을 전적으로 다른 교양과목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전공과목이나 그 외 교양과목 시간에 담당 교수의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떠한 방법 및 내용이든 응답자들은 '수강과목 시간'을 통하여 인용 교육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용 및 표절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답변은 6.7%를 차지하였고 '기타'는 2.2%를 차지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C대학이나 D대학에서는 인용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및 표절 관련 프로그램'에 답변한 응답자들은 본 질문지 조사 대상 학교인 C대학이나 D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하여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라는 답변에 표시한 응답자 2명은 '외국 어학연수 시' 교육을 받았음을 추가 기술하였다. '도서관 이용 교육 시간'을 통한 인용 교육 경험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3.5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인용표기 유무

문항6이 이에 해당된다. 인용표기는 '한다.', '수강과목에 따라 다르다.', '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한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인용 표시에 관련된 질문은 큰따옴표(" ")를 이용하여 자료의 원문을 과제에 기술하는 직접인용,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자신이 다시 표현하여 기술하는 간접인용 그리고 인용한 자료의 서지사항 기재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표기 방식의 옳고 그름에 관한 질문은 문항15~문항26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질문에서는 단지 인용표기 방식이 어떠한지 표기유무에 관한 질문만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14>는 이에 대한 결과이다.

<표 14>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인용표기 유무

인용표기 유무	N	%
한다.	36	40.4
수강과목에 따라 다르다.	17	19.1
하지 않는다.	2	2.2
부분적으로 한다.	34	38.2
합계	89	100.0

상기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40.4%가 인용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이루어진 3.2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정답률 결과를 보았을 때, 본 질문에 인용표기를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인용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수강 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수강과목 교수가 인용 표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표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19.1%를 나타내고 있다. '부분적으로 한다.'는 직접인용만 하는 경우, 간접인용만 하는 경우, 서지사항 표기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38.2%를 차지하고 있다.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2.2%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용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용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전체 응답자들의 과제 작성 시 표절 경험과 이에 관한 인식

이는 문항11~문항14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표절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5>는 이에 대한 결과표이다.

<표 15>를 보면, 문항11~문항13까지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포트 구입', '친구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 경험', 그리고 '작성된 하나의 과제를 비슷한 여러 수강과목 시간에 제출한 경험'에 대한 '없다'라는 답변이 각각 73.7%, 99.5% 그리고 80.3%로 대학생 문화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14의 '문항13이 표절이라는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44명의 응답자들만이(22.2%) 그러한 행위가 표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포트를 구입하여 제출한다든지 친구의 과제를 베껴서 과제를 제출하는 행위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과제 부정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강과목 담당교수도 대부분 공지를 한다. 대학생들이 이미 작성된 하나의 과제를 비슷한 여러 수강과목 시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표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표 15> 과제 작성 시 표절 경험과 이에 관한 인식

		N	%
문항11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포트 구입 경험)	있다	52	26.3
	없다	146	73.7
	합계	198	100.0
문항12 (친구의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 경험)	있다	21	10.6
	없다	176	88.9
	합계	197	99.5
문항13 (작성된 하나의 과제를 비슷한 여러 수강과목 시간에 제출한 경험)	있다	39	19.7
	없다	159	80.3
	합계	198	100.0
문항14 (문항13이 표절이라는 사실 인식 여부)	알고 있다	44	22.2
	모른다	154	77.8
	합계	198	100.0

이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7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

이는 문항7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항6에서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다.'와 '부분적으로 한다.'에 표기한 응답자들 중에서 해당 사항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16>은 이에 대한 결과이다.

문항6에서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다.'와 '부분적으로 한다.'에 표시한 응답자들이 총36명이었으며 이들 중 22명이 문항7에 답변하였다. 그 결과 '수강과목 담당교수님의 지시가 없다.'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출처 표시 및 인용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답변이 3.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2.5%를 차지하였다. '수강과목 담당교수님의 지시가 없다.'라는 것은 담당교수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교육 이상에서는 인용표기 방식과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 및 교육하고 있는 반면 학부과정에서는 인용관련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영향도 있다. '출처 표시 및 인용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자들이 교육 받을 기회가 적거나 제대로 된 인용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인용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수강과목 담당교수의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지시가 필요하다. '기타'에 답변한 응답자들은 '인용표기 하는 것이 귀찮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였다. 이 또한 인식의 전환 및 수강과목 담당교수의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지시가 필요하다.

3.8 전체 응답자들의 인용자료 유형

이는 문항8~문항10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전체 응답자들이 과제 작성을 위해 인용하는 자료 유형에 관한 질문들이다.

3.8.1 과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인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문항8)

<표 17>은 문항8에 관한 답변 결과이다.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66.2%, 학년별 2, 3, 4학년 응답자들 각각 63.6%, 65.2% 그리고 68.2%가 모두 인쇄자료와 인터넷 및 웹자료를 인용 자료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및 웹상에서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들로 인해 인쇄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인터넷과 웹의 발달로 인터넷과 웹자료의 획득이 인쇄자료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및 웹자료 그리고 인쇄자료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

	N	%
출처 표시 및 인용 방법을 잘 모른다.	6	3.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5	2.5
수강과목 담당교수님의 지시가 없다.	9	4.5
기타	2	1.0
합계	22	11.1

〈표 17〉 과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인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자료

학년	자료유형						합계	
	인쇄자료		인터넷 및 웹자료		인쇄자료와 인터넷 및 웹자료			
	N	%	N	%	N	%	N	%
2	2	4.5	14	31.8	28	63.6	44	100.0
3	4	5.8	20	29.0	45	65.2	69	100.0
4	6	7.1	21	24.7	58	68.2	85	100.0
합계	12	6.1	55	27.8	131	66.2	198	100.0

3.8.2 인쇄자료를 인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문항9)

〈표 18〉은 문항9에 관한 답변 결과이다.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49.2%, 학년별 2, 3, 4학년 응답자들 각각 53.7%, 47.0% 그리고 48.8%가 단행본(도서)을 인쇄자료 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Carlson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과제물에 인용 할 만 한 자료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도서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학회지 및 학술지와 학위논문 순으로 이용률이 나타났다. 수강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과제 작성 시 학회지 및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어느 정도 이용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과목일 경우 단행본보다는 해당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학회지 및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더 많은 주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3.8.3 인터넷 및 웹자료를 인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자료(문항10)

〈표 19〉는 문항10에 관한 답변 결과이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인터넷 및 웹자료를 인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자료로는 학술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자료가 전체 55.4%, 각 2, 3, 4학년별로 45.4%, 59.7%, 5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술기관이라 함은 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디지털도서관 등이다. 다음으로는 과제 주제와 관련 있는 특정 블로그나 기타 개인이 제공하는 웹자료가 이용되고 있으며 다음의 '지식'이나 네이버의 '지식in' 자료가 가장 적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표 18〉 인쇄자료를 인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자료

학년	자료유형						합계	
	단행본		학회지 및 학술지		학위논문			
	N	%	N	%	N	%	N	%
2	22	53.7	11	26.8	8	19.5	41	100.0
3	31	47.0	22	33.3	13	19.7	66	100.0
4	39	48.8	28	35.0	13	16.3	80	100.0
합계	92	49.2	61	32.6	34	18.2	187	100.0

〈표 19〉 인터넷 및 웹자료를 인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자료

학년	자료유형								합계	
	다음의 '지식'이나 네이버의 '지식in'자료		학술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자료		특정 블로그나 기타 개인이 제공하는 웹자료		기타			
	N	%	N	%	N	%	N	%	N	%
2	2	4.5	20	45.5	21	47.7	1	2.3	44	100.0
3	6	9.0	40	59.7	20	29.9	1	1.5	67	100.0
4	11	13.4	47	57.3	23	28.0	1	1.2	82	100.0
합계	19	9.8	107	55.4	64	33.2	3	1.6	193	100.0

한 결과는 가장 신뢰할 만한 학술기관의 자료를 대학생들이 이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9 전체 응답자들의 인용, 표절 인식 및 교육과 담당기관

문항27~문항28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용과 표절 인식 및 교육의 필요성 및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3.9.1 인용과 표절 인식 및 교육의 필요성(문항27)

195명의 응답자들 중 전체 응답자 97.5%(193명)가 인용과 표절 인식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2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대학생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과제 작성을 위한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용과 표절 인식 및 교육은 대학 교육에서 가장 기본과정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3.9.2 인용과 표절 교육 담당기관(문항28)

인용과 표절 교육을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이다. 이는 문항27 질문에서 인용 및 표절 교육이 '필요하다'에 답변한 응답자들이 본 문항에 답변하였다.

응답자 185명 중 120명(60.6%)이 대학 당국에서 인용 및 표절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에서는 이미 교양과정으로 인용교육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교양과정 시간에 인용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수강과목 담당교수가 교육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35명(17.7%), 대학도서관 이용 교육 시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25명(12.6%)을 차지하였다. 그 이외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답변이 5명으로 2.5%를 차지하였다. 수강과목 담당교수가 교육을 실시할 시 대학 당국에서 의무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며 학기 초나 과제 공지 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교육은 정보활용능력 표준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도서관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 교육 시 인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대학은 학문의 정직성을 갖추어야 할 학문의 전당이며,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정직성은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인용' 관련 사항은 미국대학도서관협회 표준위원회(ACRL)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준(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Higher Education) 중 표준지침5, 영국 국립 및 대학도서관협회(SCONUL)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The Seven Pillars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에는 표준지침6, 호주대학도서관협회(CAUL)에서 제시한 호주 정보활용능력 표준 제1판(Australian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 1st edition)의 표준지침6,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연구소(ANZIIL)에서 발표한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프레임워크 제2판(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 2nd edition)의 표준지침6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활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정보활용능력 중 하나인 인용에 관한 인식과 지식도 정확히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용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수준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문제 제시와 기타 관련 문제를 제시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질문을 포함해 총 28개의 질문으

로 구성되었으며 서울 소재 4년제 C대학과 D대학의 인문과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인용의 중요성 및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은 대학 당국에서 인용 및 표절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일부 대학생들은 인용 교육 경험도 있고 과제물에 인용표기를 하고는 있지만 인용관련 문제를 통해서 본 결과 인용지식 - 참고문헌에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URL 기재방법, 인용문 사용방법 등 -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일부 대학생들의 과제물 인용표기는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떤 행위가 표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표절 인식이 부족하였다.

넷째,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출처 및 인용표기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유형으로는 인쇄자료와 인터넷 및 웹자료이며, 인쇄자료는 단행본 그리고 인터넷 및 웹자료는 학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문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학문의 정직성'의 원칙과 세부 방침들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 대학의 사례처럼 대학 당국

에서 인용 및 표절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용표기법, 인용과 표절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교육, 인용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인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인용교육 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를 의무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표절 행위를 방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검색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 몇몇 대학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인용에 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 관련 사항은 여러 정보활용능력 표준에 제시 되어 있으며,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과목들도 개설되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개설된 과목들을 통한 인용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강과목 담당교수를 통한 인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용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교수가 수업 첫 시간 혹은 과제 제출 시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과

제 작성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대학처럼 담당교수가 '인용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인용표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용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인용표기법 뿐 만 아니라, 웹 자원을 인용하는데 인정할 수 있는 요소, 교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수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리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서관 이용 교육을 통해서도 인용 및 표절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활용능력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교육이 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 교육 시 인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용교육은 대학생들이 '의도적인 잘못' 뿐 만 아니라 '부주의한 실수'로라도 표절 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인용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대학생들의 인용 인식 및 지식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앞으로의 인용관련 연구 및 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영만. 2005. 『정보문해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 광동철. 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103-126.
- [3] 김성수. 2008.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정책에 대한 연구: 대학 글쓰기에서 '표절' 문제를 중심

- 으로, 『작문연구』, 6: 193-226.
- [4] 민중서림 편집국. 2010.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제6판. 서울: 민중서림.
- [5] 이인재. 2008.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교육. 『작문연구』, 6: 129-159.
- [6] 이지연, 이상곤. 2008. 과제표절과 관련한 대학생의 디지털 정보원 활용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열린교육연구』, 16(3): 103-121.
- [7] 정필모. 2004. 『학술논문작성지침』. 서울: 한국학술정보.
- [8] 립슨, 찰스. 2008. 『정직한 글쓰기』. 김형주, 이정아 옮김. 서울: 멘토르.
- [9] 최선경. 2009.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인용방식의 오류를 중심으로. 『새교육국어』, 81: 299-324.
- [10]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2005. *Statement on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online]. [cited 2010. 6. 12].
 <<http://www.historians.org/pubs/Free/ProfessionalStandards.cfm>>.
- [11] Burton, Vicki T., & Chadwick, Scott A. 2000. "Investigating the Practices of Student Researchers: Patterns of Use and Criteria for Use of internet and Library Sources." *Computer and Composition*, 17(3): 309-28.
- [12] Carlson, Jake. 2006. "An Examin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 Citation Behavior."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2(1): 14-22.
- [13] Davis, Phillip M., & Cohen, Suzanne A. 2001. "The Effect of the Web on Undergraduate Citation Behavior 1996-1999."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2: 309-314.
- [14] Davis, Philip M. 2003. "Effect of the Web on Undergraduate Citation Behavior: Guiding Student Scholarship in a Networked Age." *Libraries & the Academy*, 3(1): 43-44.
- [15] Delevko, Juris & Gottlieb, Lisa. 2002. "Print Sources in an Electronic Age: A Vital Part of the Research Process for Undergraduate Student."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9: 381-392.
- [16] Grimes, Deborah J., & Boening, Carl H. 2001. "Worries with the Web: A Look at Student Use of Web Resour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1): 11-23.
- [17] Herring, Susan D. 2001. "Faculty Acceptance of the World Wide Web for Student Research."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3): 251-258.
- [18] Kraus, Joseph R. 2002. "Citation Patterns of Advanced Undergraduate Students in Biology 2000-2002." *Science & Technology Libraries*, 22(3/4): 161-179.
- [19] Oppenheim, Charles, & Smith, Richard. 2001. "Student Citation Practices in an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Education for Information*, 19: 299-323.

- [20] Robinson, Andrew M., & Schlegl, Karen. 2004. "Student Bibliographies improve when professors provide enforceable guidelines for citations." *Libraries and the Academy*, 4: 275-290.
- [21] Stacey, Knight-Davis, & Sung, Jan S. 2008. "Analysis of Citations in Undergraduate Paper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9(5): 447-458.
- [22] Valentine, Barbara. 2001. "The Legitimate Effort in Research Papers: Student Commitment Versus Faculty Expectation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 107-115.
- [23] Yu, Fei, Sullivan, Jane, & Woodhall, Leith. 2006. "What can Students' Bibliographies Tell Us? Evidence Based Information Skills Teaching for Engineering Students."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2): 12-2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Young Man Ko. 2005. *Information literac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 Dong-Chul Kwack. 2007. "A Study on the Types of Plagiarism and Appropriate Citation Practices of Writing Research Pap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103-126.
- [3] Sungsoo Kim. 2008. "A Study on the 'Academic Honesty' Policy in the U.S.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problem of 'plagiarism' in college wri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riting Science*, 6: 193-226.
- [4] Minjungseorim Pyeonjipguk. 2010. *Minjung Essence Korean Dictionary*. 6th ed. Seoul: Minjungseorim.
- [5] Injae Lee. 2008. "Writing Ethical Education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riting Science*, 6: 129-159.
- [6] Ji-Yeon Lee, & Snag-Kon Lee. 2008.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Misuse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Open Education*, 16(3): 103-121.
- [7] Pil-Mo Jeong. 2004. *Haksulnonmunjakseongjichim*. Seo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 [8] Lipson, C. 2008. *Doing Honest Work in Collage*. Translated by Hung-Joo Kim, & Jung-Ah Lee. Seoul: Mentor.
- [9] Seon-Kyung Choi. 2009. "Analysis of errors in academic writing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style of c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Korean Education*, 81: 299-324.